

2·0·0·0·여·름·기·지·촌·활·동·교·양·학·교·기·획·단

2000' 연세

여름

기지촌 활동

교양학교

2000.7.24 - 26

2·0·0·0·여·름·기·지·촌·활·동·교·양·학·교·기·획·단

를 신 개 화 책

월간 7월호 1998년 7월 15일자 100쪽

2000 여름

기지촌 활동 교양학교를 준비하다



기지촌 활동의 시작은 199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 활동의 시작은 199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 활동의 시작은 199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 활동의 시작은 199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 활동의 시작은 199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 활동의 시작은 199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 활동의 시작은 199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 활동의 시작은 199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지촌은 '기지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기획글

교양학교 일정 소개

첫째날

매매춘·기지촌에 대한
기활교양학교 기획단의 생각들

둘째날

성을 산다는 것? 성을 판다는 것?

셋째날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매매춘을 바라보는 서구 페미니즘의 관점
기활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재구성

2000 여름 기지촌 활동 교양학교를 준비하며



교양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일주일 일정으로 기원을 들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처음가기 때문에 낯설고 약간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원도 두렵지만 기원학교에 누가 올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학내에서 거의 관심받지 못하는 매매춘이라서 사람들이 오거나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매매춘은 정말 생소한 주제입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 내에서도 매춘여성인권운동은 다른 주제의 운동에 비해서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대학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성폭력 운동같은 경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성폭력에 기반하는 반면 매춘여성은 낯설고 고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기지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매매춘이라 할 수 있는 3차산업 매매춘에 비해서 그나마 사회적인 관심도 있고 운동도 진행된 곳입니다. 이는 기지촌여성 사망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지촌여성 사망사건이 미군범죄로 인식되면서 민족주의운동의 표상이 되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기지촌 여성이 주변화되고 대상화된 채 반미운동의 도구로서 사고된 것입니다. 평소에 주목받지 못하던 기지촌 여성은 사망하고 나서 '민족의 순결한 딸', '미국놈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누이'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글에서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을 '죽어야만 사는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은 또다시 민족의 자존심, 보호해야 할 정조, 남성의 재산으로 사고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매춘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일상적으로 겪는 가부장적인 억압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지촌 여성의 현실에 기반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담론을 위해 개인의 인권이 묻혀진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운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지촌 여성은 '매춘 여성의 인권은 지켜질 필요가 없다'는 사회의 가부장적인 편견, 포주와 폭력배의 착취,

‘손님’이 가하는 폭력, 미군의 범죄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인권은 전혀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침해당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매춘 여성은 ‘피해자’입니다. 이들이 매매춘에 유입되는 가장 큰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며 많은 경우 어린 시절 성폭행을 겪었습니다.

우에노 치즈코라는 일본 여성학자는 일본군 성노예에 있어서 해방이후 50년간의 사회적 침묵, 순결하지 못한 여성에게 이루어진 범죄에 대한 침묵, 할머니들이 혼자서 삭여야했던 고통들을 2차적 범죄로 규정짓고 ‘이중적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매춘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한 침묵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못한 채 은폐되곤 합니다. ‘순결하지 못한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 성폭력을 기지촌 ‘언니’들의 그것과 동시에 사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둘을 하나의 연장선상에 놓는 것도, 아니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렵기만 합니다. 사실 기지촌, 매매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내 안에 얼마나 확신으로 서 있는지, 실제와 다른 것은 아닌지도 계속던져야 할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머리로만, 말로만 재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여성에 대한 범죄, 자신에 대한 범죄의 동조자가 되기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기행교양학교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행 교양학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인사 기행 교양학교 설명

본격적인 기행 교양학교를 위한 준비운동

- ▶ 성매매·기지촌에 대한 내생각 풀어보기
- ▶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 ▶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표현하기

24

25

<성매매 거리에서 본 꿈에 관한 보고서>

- 상영 ▶ 한소리회 제작
'성을 산다는 것? 성을 판다는 것?'
강연 ▶ 한소리회 간사 김경희
토론하기

열린 세미나

주제1. 우리는 매매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 『섹슈얼리티 강의』 8장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 ▶ 매매춘을 바라보는 서구 페미니즘의 관점 발제문

주제2. 민족주의와 젠더

- ▶ '기행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재해석'
- ▶ 『한국여성인권운동사』 中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26

첫 · 째 · 날

성매매 · 기지촌 문제에 대한 내 생각 풀어보기

2000 여름 기활교 · 학교 기척단의
성매매 · 기지촌 문제에 대한 생각들

문대 여성모임 '모반'
00학번 . . . 쉬라

기활 갈 수 있는 인원이 6명뿐이라는 말을 듣고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당연히 경험도 많고 기지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선배들이 가게 될 줄 알았다. 운 좋게 나도 기활 가는 6명중 한 명이 된 후에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무 고민 없이 '대학에 와서 겪는 새로운 경험의 하나'로 기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나와는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었다. 적어도 기활 가기 전까지는 나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그들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활 교양학교 준비를 했다.

전에는 '매매촌'하면 매춘 여성만이 떠올랐다. 매매촌 지역에 매춘 여성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에도 항상 그곳의 여성들만이 창녀라는 단어와 함께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는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엄창'이라는 말이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었다. 내가 말한 게 거짓이면 엄마가 창녀라는 의미다. 또 고등학생들이란 늘 연예인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화제 거리 중에 꼭 빠지지 않았던 게 '누구누구는 걸레(창녀)래~', '요즘 개 연기도 못하는 데 막 드잡아~ 그게 그 드라마 PD한테 물팔아서 그렇게...' 였다. 그런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농담 따먹기의 분위기에서 화제 거리가 되고 대부분 애들의 반응이 '어쩐지...'로 마무리되는 상황... 매춘 여성의 삶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되고 별 일 아닌 일상적인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 같다. 또 언제나 여성의 몸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매매촌이나 기지촌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란하다. 가난, 포주, 법, 미국, 사람들의 손가락질 등이 함께 떠오르면서 답답해진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나면 기활을 가기 전에 무언가 마음이 정리되고 나의 생각이 만들어질 줄 알았지만 더 부담이 되고 기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나의 행동이나 말이 그곳에 있는 언니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이들에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기활을 준비하면서 읽은 것들이 사람과 직접 부딪혔을 때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에는 모두 소용없을 것 같아 두렵다. 아직도 매춘 여성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기활을 가서 함께 지내는 동안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기활....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민중연대 현장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농활, 한활, 공활, 빈활, 그리고 기활....내가 기활을 간다고 그랬을 때 주위사람들이 잘 물어 보는 2가지가 있었다. "가서 뭐하나, 그리고 왜 가냐?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물음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한 답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처음에 기활을 알게 된 것은 백양로에 붙어 있는 기활 pc를 보고서이다. 현장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민중연대 활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많이 접해 보려고 하던 중에 기활pc를 보았고 처음에는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 쳤다. 그후 가장 컸던 것은 무엇보다도 호기심 이었다. 기지촌이라는 곳, 기지촌 여성분들, 그리고 그 분들의 생활..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앞서서 기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지촌, 그리고 주한미군,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기지촌을 생각하면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 중에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 기지촌에서 직접 생활하시는 분들 그 여성분들에 대한 접근이나 생각,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의 내 생각에서 한 쪽으로 비켜 나가 있던 생각하지 않던 부분 이었다. 하지만 그런 민족적인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외에도 개개인의 인권 또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조금 더 생각하고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제외한 채 아무리 학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물론 기활을 간다고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과 얼마나 만나고 접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단 기간 안에 그 생활이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 또한 무리이고...)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접해보고 느끼기 위해서 기활을 가고 싶었다. 물론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당장 가서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내가 전에 가보았던 한활에서 그 전까지의 생각이나 이야기들이 거의 다 쓸모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많은 부분 바뀌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기에 기활을 가면서 많은 생각이 필요 하지만 많은 부분 절반 이상을 열어 둔다. 그러한 부분은 가서 느끼고 보는 것들에 의해서 채워질 테니까....

이학계열 . . .
00학번 정의민

이학계열 . . . 98학번 강세나

내가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된 건 미군 범죄에 관해 알리고 미군 철수를 위해 투쟁하는 선배들을 통해서였다. 미군에 의해 심하게 구타 당하거나 처참하게 살해된 기지촌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될수록 그에 얽혀있는 문제가 단지 미군 범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점적으로 문제시 하고 있는 측면에서만 그곳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했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건들을 선전 수단으로써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게도 했다. 사람이 죽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사실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조차 생각하기 쉽지않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겪으며 살아왔는지 보게 되며, 그것을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에서만 그 원인을 찾으려 한다. 문제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이런 현상은 거의 계속 반복되었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 논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다가 기지촌 활동(이후 기활)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기꺼이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했다.

내가 기활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해 여기서 백날 논의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기지촌 여성들을 접할 수 있으며 겪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다. 그곳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곳에 최대한 가까이 가고 싶었고, 그 속에서는 여기에서 보다 뭔가가 더 많은 것 그리고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머리로만 논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부분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본다.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얽혀있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의 어느 하나도 간과하거나 배제,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그곳의 문제는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활을 갈 때는 여기서 기지촌의 상황에 대해 들은 것이나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되도록 잊고 가려고 한다. 현장활동을 그래서 가는 것이겠지만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갔던 선입견들에 의해 혹시라도 왜곡되지는 않을까 해서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지만 이번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활 준비와 교양학교, 그리고 기활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활과 기활교양학교를 준비하며

사회대 여성모임 'beyond' 98학번 . . . 윤

우리 사회에서 성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매매춘은 나에게 오랫동안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무엇이였다. 이런 생각은 다분히 도덕적인 잣대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여성모임에서 활동하게 된 이후에도 매매춘이나 기지촌에 대해 접해볼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매춘여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기 전에 매춘은 그저 내게 그저 사회악일 뿐이었다. 나의 경우 매춘과 기지촌 문제를 여성문제로 인식하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지금 생각으로는 매매춘과 기지촌 문제만큼 복잡한 여성문제의 갖가지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문제도 드물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 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이 나를 혼란에 빠뜨리곤 한다. 어떤 쪽에 '우리는 직장 여성, 성폭력을 당한 여성, 이혼 여성이 될 수는 있지만 매춘여성이 될 수는 없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것과 비슷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이 말이 지금 나의 고민을 비슷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직접 매춘의 현장에 있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매춘여성들과 나 사이의 거리감은 생각만으로 채워질 것 같지 않다. 매매춘과 기지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않은 않았다. 세미나는 결론을 내려주지는 못했지만 흩어져 있던 문제의식들을 정교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6월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의 기활을 통해 그들의 삶을 눈으로 확인하고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지촌이라는 모순의 공간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여성들과 내가 각각 주체로서 서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총여학생회 기활팀 97학번 . . . 뚝지

예전에 내가 문대 여성모임 '모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과 선배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여성운동에서는 매춘을 어떻게 바라보나?" 그 질문에 대해 내가 했던 대답은 매춘은 여성의 성이 상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우둔한 답 뿐이었다. 이런 답을 하면서도 여성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여성운동 하면 항상 회자되는 매춘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도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내 자신을 굉장히 책망했었고, 왜 내가 그동안 한번도 매춘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없었는지, 매춘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는지, 매춘에 대한 강연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내에서 매매춘이라는 주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는 점. 그래서 여성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춘에 대한 여성주의적 담론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나의 그러한 우둔한 답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 질문 사건(?)으로 인한 나의 고민은 이어지지 못했다. 내가 매매춘, 기지촌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기 시작한 계기는 99년 기지촌의 매춘여성인 이정숙씨 사망사건이었다. 이정숙씨가 사망한 그날 밤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영안소를 지키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그 전에 읽었던 기지촌 여성들의 얘기를 담은 소설 「뿔발」에서 묘사한 기지촌 여성들의 생활, 그들의 죽음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오버랩되면서, 이정숙씨 사망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새내기 분들을 보면서 기지촌·매매춘의 문제는 나에게 커다란 충격과 화두로 다가오게 되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나는 기말 교양학교 기획단 내의 세미나를 기획단에 참여하는 다른 00학번들과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번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정숙씨 사망사건이 나에게 가져다준 충격과 문제의식은 단순한 충격과 문제의식에 머무르지않은 않게 되었다. 끊임없이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하는 미디어의 시선들, 남성의 성적 욕망과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본능적인 환상들, 순결한 여성과 더러운 여성의 이상한 이중적 규범들 속에서 나의 삶과 매춘여성들의 삶의 접합지점을 어렵웃이나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기말 교양학교 기획단 활동은 나에게 굉장히 커다란 경험이 되었다. 매매춘·기지촌에 대한 나의 고민은 같은 여성이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는 사는 집안의 딸, 소위 일류 명문대를 다닌다고 하는 엘리트 여성의 고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올해 기말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나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성찰 속에서 매매춘·기지촌에 대한 나의 고민이 단순히 책상 앞에서 '나는 그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라는 오만함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기회들을 많이 찾고 싶다. 그리고 매춘여성과 나 사이의 접합지점과 단절의 긴장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겠다.

기말 학교를 준비하며..

사실 난 평소 매매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커오면서 매춘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표현들이나 매춘 지역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들을 주입 받아왔던 것 같다. '걸레같은' 또는 '창녀같은' 여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 해야 한다, 저러 해야 한다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학교 등·하교길에 역 주변의 흥동가를 지날 때 그 지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는 호기심을 내비쳤던 기억들이 있다.

여성학자치도서관
'feminary'
97학번...시루

동아리 내에 있는 여성학 소모임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매매춘 문제를 잠깐 다루었을 때만 해도 난 너무나 쉽게 매매춘을 하나의 성중립적인 직업으로 취급했던 것 같다. 여성도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매매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나도 그 관점들 중 하나를 택했던 것일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냥 머리로만 쉽게 해버렸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안일한(?) 관점 정립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매매춘이라는 것, 더 좁혀서 기지촌의 매매춘이라는 것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불리 뱉어버린 입장이라는 것이다.

기말학교를 함께 준비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매매춘이라는 문제가 내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처럼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매매춘이 이 사회에서 존재함으로써 여성의 성(性)이 얼마나 평가 절하되고, 이것이 한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기지촌의 매매춘 지역은 민족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곳이어서 성 모순 뿐 만 아니라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직접 기지촌 활동을 가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작은 토론의 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 정리를 정확히 하고 싶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매매춘 산업으로 인해서 '남성 지배 구조'가 공고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여성이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여학생회 기말팀
97학번...썰

내가 매매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다. 별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고등학교 2학년때인가,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어떤 애가 얘기를 하고 주위에 애들이 몇 명 몰려있었는데 그 애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게 매매춘이란 걸 이내 알 수 있었다. 주위에 모여든 애들은 호기심, 두려움,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나도 그러했다. 그 애는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둘 중에 먼저 나오면 되게 쪽팔리다고 했다. 오래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인데 한번은 수업시간에 문학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었다. 그 선생은 자기가 비록 돈은 얼마 벌지 못하지만 싸구려 자잘한 물건은 사지 않고 비싼 걸 사서 오래 쓴다고 했다. 그리고 돈도 쓰고 싶을 때는 전혀 안쓰다가 한번에 팍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에 60만원인가를 썼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자기가 쓴 곳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마지막으로 돈 쓴 곳이 어딘지는 후후후...너희들은 알 거 없다.'라고 했다. 반 아이들 몇몇은 그게 무얼 의미하는지 알고 킁킁대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매매춘에 가진 생각은 그랬다. 내가 보통 가지고 있었던 애매모호한 태도들과 마찬가지로 애매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했다. 나도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친구랑 가게 될까. 아니면 나 혼자 가게 될까. 그게 나의 첫경험이 될까. 될까. 군대 갈 때 즈음에 가게 될까. 하여간에 범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매매춘이 내 머리속에서 뱀들기 시작한 것은 4개월전 Feminists' CAMP라는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라는 곳에서 총여학생회에 보낸 문건을 보내왔을 때 였다. 아니 그 때 이후 CAMP모임에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CAMP에서 하는 열린세미나에 참여하고 기지춘, 매매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그 이전에 어느 새 머리속에 성적향타자가 고민거리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그것이 맞물리면서 일지도 모르겠다.

기행을 처음 들은 것은 1월달에 인가였지만 그 때는 총여학생회 내부 사정으로 가지 않기로 했었다. 그리고 그 때 CAMP모임에 참여해서 여름기행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처음 기행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가려고 했었다. 여름기행학교는 사실 생각치 못했던 것이었는데, 가기 전에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CAMP에서 얘기되었던 내용들을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고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매매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들은 얘기로만 남성의 욕구에 맞추어서만 상상했을 뿐이었다. 아직 잘 모르지만 매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기행은 약간 걱정되지만 갔다온 친구들 말로는 즐겁고 좋은 경험이라고 한다. 아마도 우리가 가는 주에 수요일에 공부방 아이들과 강화도 갯벌에 갈 것 같다. 비싼 차 대여비만 해결이 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둘 · 짝 · 날

<성매매 거리에서 본 꿈에 관한 보고서>

상영과 강연 · 토론

‘성을 산다는 것’ 성을 판다는 것’

▶ 한소리회 간사 김경희

Our Dream of Healing...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한소리회제작 다큐멘터리)의 영어제목입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 상처를 통하여 진실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처의 경험은 성숙함의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니 말이지요. 좀 강렬한 하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러나 상처라고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크게 되면 그 상처를 치유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자포자기야말로 더 큰 상처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 도무지 자기 힘만으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유의 때를 넘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춘여성들은 그 연민의 대상에서조차도 외면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연민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매춘에 빠져들게 되는 경로는 아주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좋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국에 120만명의 매춘여성이 있다고 추산하는데, 그 많은 이 땅의 여자들이 정녕 그 ‘좋아서’라는 이유로 매도되어버리는 것이 정당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또 한가지 이유를 댁니다. 옛날에는 ‘가난’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요즘엔 그 이유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 전의 ‘가난’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들 아주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된다면 이런 단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외면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이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20-30년 전보다 외적으로 부유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해진 것은 소비의 상태일 뿐입니다. 소비문화가 자리를 잡고, 더욱 부추기고, 여기에 아직 어리고 젊은 여자아이들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스무살이 되기도 전에,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소비해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가져야 하고,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가방과 새 구두와 비싼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말합니다. “돈이 필요해서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은 뒷전이 되고 당장 그들의 ‘절음’을 돈으로 바꾸어 주는 곳이 그들을 많은 힘 들이지 않고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겪는 ‘가난’입니다.

이들이 처음 발을 딛는 곳은 단순한 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조직은 이들을 순순히 돈을 벌도록 돕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의 고리에 걸려들기 시작하고, 그 빛은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최근 한 상담사례는 겨우 3개월만에 빚이 1,400만원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악한 업주들이 활개를 치고, 어린 소녀들을 유린하도록 방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업주와 일하는 여성들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공권력의 뒷받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은 경찰들이 더 많은 폭력을 동반하고 어린 여성들을 돈으로 사며, 피해자인 여성들이 아니라 업주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거대한 힘은 이 결탁에 대하여 눈감아주고 있는 이 사회 전체의 ‘의식’이지요.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녀들은 놀랄만큼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행, 어머니의 학대, 형제들간의 불화, 한번도 그들을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안아주지 않는 이 사회의 현실. 이미 열다섯살이 되기 전부터 가출을 하고, 그 가출이 거듭되면서 학교도 다니지 않게 되고, 그들이 전전하는 곳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마치 가족처럼 조직된 포주와 깡패들의 왜곡된 사회입니다. 그녀들은 그곳에서 위안을 찾고, 하루 하루의 지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대, 20대를 훌쩍 넘겨버리면 후회와 빚만이 그녀들에게 짐보다 더 많이 남아서 더 무겁게 발을 움아 묶습니다. 수많은 자살의 시도, 항상 ‘나쁜 년’ 취급당하는 눈초리로부터 자신을 최소한 지켜내려는 몸짓은, 그녀들을 더욱 난폭하게 만들고, 악을 의지하게 하고, 또 때로는 철저히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감추어버리게 합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이 ‘좋아서’ 그 소굴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이 상처는 결코 그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함께 책임지고 치유해야할 공동의 상처입니다. 손끝에 난 상처만으로도 온 몸이 아프듯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한 부분의 상처를 이제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외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이 진정 살아있는 몸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앓고 있는 아픔에 눈뜨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이 감각을 상실하게 하였을까요? 저는 나와 타인을 나누어 타인을 객체화해왔던 오랜 남성중심적 문화와 자본주의를 그 원인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은 사회에서 여성과 가난한 자는 언제나 남성과 자본의, 즉 지배하는 자의 대상이 되었고 필연적으로 일방적인 상처의 담지자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도시의 미끈한 건물과 대리석 바닥을 위해서 변두리에 쌓여가던 쓰레기들처럼, 사람이 사는 세상도 어딘가는, 누군가는 오물처리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좋아서”, “필요악”, “남성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논리인가 말입니다. 또한 사람이 어디까지 상품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노동을 이 사회에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되는 것이 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어쩌면 생명을 만들고 키워내는 여성의 자궁까지도 상품으로 취급하고 전락시켜버렸는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인 것은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딸들은 이 위험스러운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그 희생양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춘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성적 욕구의 해소의 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거기에는 수요자의 일방적인 폭력이 존재하고, 이 폭력을 보장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미 인간은 상실되고 다만 돈주고 살 수 있는 ‘물건’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최근 ‘소녀매춘’(원조교제 : 이 말은 일본의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그대로 들여와 언론과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데, 원조교제라는 말로 그 범죄행위를 감추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반에 20명 이상이 소녀매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전국에 여학교가 몇개이며, 반이 몇개이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반에 20명씩이면 모두 몇명인지요? 그 많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사는 늙은 남자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이제 어린 여자의 몸까지 돈으로 바꾸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안게 되는 상처에 대한 어른의 고민이나 염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춘은 필요악입니까? 매춘이 없으면 성범죄가 늘어납니까? 우리는 아무 비판없이 이러한 관념에 중독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왔습니다. 남성의 성은 정말 절제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 벌어지지도 않은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춘을 묵인해야 합니까? 그것이 더 큰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까? 이러한 의식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좀더 널리 퍼뜨렸을 때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쯤 가만히 혼자서 이 질문마다에 답을 내려 보십시오.

이 영킨 실타래를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아마 이 세계는 알지 못한 채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곳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저는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저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와 생각으로 이 문제와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고 갑시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생각, 알기도 전에 비난하는 습관, 그리고 거대한 구조의 탓으로만 돌린 채 침묵해버리는 냉정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딸들을, 이 땅의 어머니들을 더러운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어린여자의 성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의 성은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자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왔던 남성의 성까지도 소중하며, 결코 돈으로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 · 짝 · 날

열린 세미나
주제 1. 우리는 매매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주제 2. 민족주의와 젠더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원미혜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1. 무엇이 문제인가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이 은폐되다가 한 번씩 선정적으로 까발려지기도 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진부하리 만큼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은폐를 바라는 사람들은 말한다. "매춘(賣春)은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데 이제 와서 어찌겠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 '왜 그토록 성적 능력이 탁월한 남성들이 매춘부라는 직업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반문도 해볼 만하다. 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여성이었으며 왜 그러한 성적 행위가 필요한가를.

사실 다른 성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 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여성 억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1) 예를 들어 뉴기니아의 한 부족(Etoro)은 아이가 잘 자라려면 엄마의 젖을 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아이에게 성인 남성(대부분 친척)의 성기를 펠라티오(fellatio)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관습은 근친 상간, 어린이와의 성관계, 동성애 등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섹스'가 아닌 '아이 기르기'의 범주에 속해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듯 한 문화에서 섹스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다른 문화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갖

바빌론의 성스러운 예식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프랑스에서처럼 아내로 선포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육점 같은 시뻘건 등이 켜진 사창가뿐 아니라 이발소, 여관, 목욕탕, 술집, 산 고속도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뚜껑을 열면 기지춘 골목마다 방치된 혼혈 아이들,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 빛과 착취의 늪, 인신 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회춘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 가는 여성들이 쏟아진다.

성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만남을 주선하는 신종 상품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욕은 한계점을 잃은 듯 새로운 자극과 해소의 방식을 발기시키는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고무되고 있다. 다방에서도, 전화방에서도, 매체에서도 성을 끼워 판다. 한층 더 열악한 국가의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바다 건너 더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이제 성매매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나 단순한 생물학적욕구의 문제를 떠나 거대한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의 성매매 현상을 접하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문제시해야 하는가? 성매매의 무엇이 여성에게 해로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하게 얽힌 성매매 현상의 실태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써는 데 '관점'의 정립이야말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억압적인가'라는 질문을 여성 내부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성매매를 문제로 다루어 온 연구물이나 사회적 시각은 매춘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출된 전통적인 물음들은 왜 여성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빈약한 성과학자나 범죄심리학자는 그 답을 매춘부들이 병리학적 요소나 일탈적 속성에서 찾았으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경제적·심리적 현실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지라도 성매매의 전체 구조를 알기에는 '매춘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각 그림에 불과하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성매매야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존속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기본 관점 갖기

1) 용어 읽기: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기 때문에 성적 관습에 도덕적 절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hrage, 1989, 350~351쪽). 성매매 역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수없이 변화되어 왔고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매매의 문제를 논할 때 성이 놓인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성적 '욕구'만의 문제로 단순화하거나 고정된 도덕적 틀로 평가하는 관점들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誤入),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매매음(賣買音)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력을 갖게 된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 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레이저(L. Shrager, 1989, 349쪽)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때 성이 매매되는 현상에 굳이 '봄(春)'이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春'자는 춘화(春畵), 회춘(回春) 등 일반적으로 성을 가리킬 때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그것이 일본식 한자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성을 고정 불변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성을 봄에 비유

2) 예를 들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는가는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폭동, 광주 사태 등으로 불렸던 시대에 그 의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중요했고 명칭을 규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표로 나타났듯이, '성매매'의 용어 또한 현재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하게 되었을까? 춘정(春情), 즉 성욕이란 봄에 새 생명이 돌아나듯 지극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성욕을 필연적인 것, 고정된 것으로 포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은 성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여전히 행위자 중심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언어 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춘(賣春)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매매, 인신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릴지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하고 싶다. 3) 앞서 지적한 것처럼 특정한 용어의 사용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자체로 기존의 인식을 깨는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환상 벗기

가.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없어진다면 남성들의 성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성매매는 남성들의 발기된 성욕을 해소하는 장(場)이고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는 성적 행동의 한 측면으로만

3)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산업 종사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의미로 '매춘여성·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앞서 열거한 정치적 의미를 약화시키지만, '성산업 종사자'의 의미는 너무 포괄적이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란 말을 사용하면 의미는 잘 전달되나 서술적이고 너무 길어 지칭어로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용어가 모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모순적이기는 해도 매춘여성 또는 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매춘여성에 대비되는 말로 성을 사는 '매춘 남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 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매매 공간에서 손님과 종사자간의 권력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아무튼 이러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대안적인 용어를 함께 고민해 보자.

파악되고, 남성의 성충동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환상의 문제는 성매매를 단지 생물학적인 결정 요인만으로 설명하고 성매매의 정치적·경제적 토대를 무시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다른 사악한 요구들(예를 들어 살인, 지배, 폭력의 욕구 등)을 욕구 자체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성매매에 대한 욕구 역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의 사회적 기능만을 강조하여 그 역기능을 간과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남성의 성욕을 식욕과 마찬가지로 욕구의 필연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에 대해 패이트만(C. Pateman, 1988, 197~199쪽)은 음식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섹스의 필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간은 손이라는 수단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즉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성매매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는 누구나 믿고 있는 이 신념에 대한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밝혀진 적이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와 성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국가 사이의 성폭력 발생 비율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통념의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를 억제하는 국가의 성범죄 비율은 성매매가 적은 국가에 비해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러나 결론은 그 반대이다.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도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와 성매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국가 중 성매매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성폭력 비율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결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여성을 보호한다고 믿는 것은 성매매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모른 채 갖게 되는 환상일 뿐이다. 이러한 환상은 단순한 환상의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의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이런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S. Wynter, 1992, 269쪽) 남성에게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안드레아 드워킨, 1989)이라면, 성매매는 돈을 주고 행하는 ‘연습 게임’이 되는 셈이다.

나. 성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기생 관광, 태국의 매춘 관광, 어린이 매매 등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은 경제적 부를 위해 성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동남 아시아를 비롯하여 성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 개발 국가의 경우, 그 사회가 치르는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태국의 경우 섹스 관광으로 국내 성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남성들은 예사로 사창가를 찾는 문화가 만연되었다. 또한 국내 성산업의 발전은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등 외국으로부터 여성의 유입을 증가시켰

다.

특히 에이즈는 전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성산업 중심의 관광 산업 발전으로 사창가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어디에서나 에이즈가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으로 아무 학교 학생에게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냐고 물으면 거의 모든 학생이 ‘있다’고 대답할 정도이다. 태국은 성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2000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 성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독송과 관계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성산업, 성매매의 발전은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서비스 직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향락 산업에도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인력 수급이 불균형한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연령층이 20대 또는 10대라는 사실을 헤아려 볼 때, 이런 여성들은 기술이나 다른 업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성산업 또는 비슷한 업종에 머무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매매가 향락 산업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산업 종사자들은 향락 산업을 통해 알코올, 마약, 약물, 노름 따위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가 된다. 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치료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사회 비용 또한 엄청나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사회적으로 폐기 처분된 폐인이나 병자로 남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막대한 국가 인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성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여성 노동력의 유출, 인력 수급의 불균형, 재사회화 비용, 성병 및 에이즈, 가치관의 혼돈 등을 사회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성산업으로 얻는 눈에 보이는 이익은 아무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산업의 발전은 경제 발전에서 ‘밀려진 독’의 역할을 한다.

최근 성산업이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각국에서는 ‘성산업 없이도 관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활발히 나오고 있다.

다. 매춘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성매매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성매매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하며 고개를 돌려버린다. 도대체 왜 성매매에서 야기되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성들의 자발적

4) 한편, 사람들은 성매매를 애정 없이 육체적으로만 만족하는 섹스, 프리섹스(free sex)의 하나로 취급하려고 한다. 프리섹스는 상호간의 육체적 쾌락을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불평등한 금전 관계를 매개로 상대를 성적으로 지배/피지배하는 구조를 갖는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 그것은 남성의 만족을 위해 여성의 몸이 일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며, 여기서 매춘부의 쾌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와 프리섹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창가의 문지기 역할을 하던 한 경찰관은 이런 말도 한다. "스스로 자기를 상품화해 가지고... 어느 문호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한다, 그런 말을 제가 언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엔 그런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깐..."⁵⁾

이러한 논리를 따르자면 매춘여성들은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파괴를 경험하면서 쾌락을 얻는 존재가 되고 만다.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므로 매춘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착취는 또한 그 자체로 선택되어 버린 것이 된다. 스스로 파괴되길 원하는 사람은 인격도 최소한의 시민권도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매춘여성은 강도나 강간을 당하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을 때도 "한 번 당하나 여러 번 당하나 마찬가지일 텐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신고까지 하느냐"고 경찰로부터 모욕을 받는다.⁶⁾

매춘여성에게도 인권이란 것이 있는가? 매춘여성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성매매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매춘여성들에게로 돌리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이유도, 매춘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착취 등의 인권 문제도, 모두 다 매춘여성의 피착취인 취미로 인해 '선택'된 것이라는 논리다. 성매매에서 여성의 자발성 논의가 추상적이며 극단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 매춘여성의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구성하는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춘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질문은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비생산적인 물음이 아니라, '여성은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매춘여성은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매춘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만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특정한 개인의 일탈적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조건과 사회 조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의 접점을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고 한데,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닌 여성의 실제, 성매매의 실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매춘부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매매는 성차별에 따른 사회 진출의 제한이나 그로 인한 가난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 특히 가난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깊은 늪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성매매에는 팔릴 수 있는 여성의 몸이 있다는 사실과 성별에 따른 부(富)의 불균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가 축적되면 성산업이 팽창하고 성매매가 증가한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직업보다 수입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입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불황일

5) 사례 재인용(원미혜, 1997, 56~57). 서울 M지역의 사창가 주변에 있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중반 경찰의 말이다. 그는 M지역 사창가가 얼마나 한국의 관광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지로 강조하면서 '홍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특히 일본인에게 관광 홍보가 잘 된 것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6) 사례 재인용(원미혜, 1997, 76쪽).

때 매춘여성의 수는 감소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 사회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경제적 호황을 누릴 때 성산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가 위축되고 IMF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여성들의 성산업 유입이 늘어났다. 여성들은 일차적인 감원 대상이 되어 노동 시장에서 퇴장당했다. 신문에는 '생계형 매춘'의 증가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전국 사창가의 보건 관리를 맡고 있는 한 관리자는 "현재 사창가는 성을 사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경제 위기의 실태를 설명했다. 전쟁 중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듯 경제가 호황일 때 온갖 종류의 성산업과 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시 성산업으로의 여성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경제적 혜택의 첫 번째 대상이 남성이며, 피해의 우선 순위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국가의 부와 여성의 부가 갖는 상관성은 남성보다 낮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경제적 부의 정도와 성매매 발생의 상관성이 적다는 것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성매매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살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매춘여성이 개인적으로는 가정 폭력, 가난, 강간 등으로 돌아갈 가족이 없거나 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유입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논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대안이 있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은 자유롭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성매매의 구조이다.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기동 서방, 포주, 알선자들에 의해 사적인 관계나 빚, 폭력으로 얽매어 있는데 특히 포주에 의해 통제되어 오랜 시간 성적으로 이용되는 매춘여성은 자포자기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여성이 매춘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는 폭력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성산업의 구조 속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가 아닌가의 논의는 성매매 자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노예 노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노예가 스스로 노예 되기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예제는 엄연히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위반이다. 특히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노예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을 경우가 많은데, 행위자의 자발성으로 노예 제도가 옹호될 수 없듯이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매매가 옹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일'이라고 여기든지 간에,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과 성매매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도 '노동'일 뿐만 아니라 어엿한 '직업'이라고 말한다. 생산 중심의 '노동' 개념에서 벗어나 보면 성매매는 여성의 다른 노동과 변별성을 갖기보다는 더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성매매가 추상적 개념 차원에서 노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이란 개념에는 사회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윤리', '억압'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등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목적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노동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예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것처럼 매춘여성의 성노동은 흔히 '노예 노동', '임금 노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가 어떻게 노예 노동과 비슷한지를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살펴보자.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남성 손님과 매춘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매매는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직접적으로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성매매의 공간에서 매춘여성을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가를 보도록 하자.

먼저 성매매는 화대 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여성은 자신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남성 손님과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된다. 남성 손님은 여성의 선택에서부터 채워, 콘돔 사용 여부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춘여성은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임으로써 성병이나 에이즈 등 각종 성질환에 무력하게 노출되고 있다. 매춘여성이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화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콘돔 기피로 인해 매춘여성 가운데 14%만 콘돔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1993, 54쪽). 그러나 남성 손님이 성매매에서 콘돔을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내버려두고라도 콘돔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남성 손님이 결정하고 매춘여성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매춘여성이 단순히 제한된 '성기'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보호권을 전적으로 남성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콘돔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손님

은 화대 지불을 빌미로 굴욕적인 성체위나 폭력 따위를 매춘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주나 포주가 매춘여성의 화대를 직접 분배하는 경우 업소에 들어온 손님에게 화대를 못 받을 때는 매춘여성 자신이 포주나 팸프에게 분배액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화대를 받기 위해 손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흔히 매춘여성에게 '매춘(賣春)'은 단지 신체의 일부인 성기를 손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노동'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매춘여성이 자신과 상품화된 성을 분리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자아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들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을 '손님'으로, 성행위를 돈을 받는 '일'로 취급하려 하고, 손님과의 관계에서 제한과 금기(예를 들어 키스 거부, 굴욕적인 체위 거부 등)를 만든다. 그러나 성행위를 경제 행위로 취급하려는 매춘여성은 화대를 받지 못한 '강간' 때문에 이러한 금기를 지킬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들이 '일'로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한·금기의 장치가 파기된다는 것은 육체에 대한 손상, 즉 자아에 대한 훼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매춘여성 스스로 만드는 이러한 제한이나 금기는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성매매 공간에서 쉽게 무너지는데, 흔히 남성은 많은 화대로 또는 위압적인 폭력으로 금기나 제한을 깰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춘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폭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신체에 대한 학대에 보상이 따르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성매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체적 손상조차 그것이 대가가 '지불된 것' 이면 '성매매'의 성적 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학대나 그 사용은 특별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성매매의 문제는 매혈이나 신체의 일부를 매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임의로 일정 기간 사용(폭행을 하거나 사용자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등)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도 '자아'와 '신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케페스(Dr. Kepes)는 신체가 인간 권리의 기본 토대이고 이는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는데, 신체에 자행되는 폭력은 자아를 뺏고 인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성매매 행위는 매춘여성이 자신을 신체로부터 분리시키고 단편화된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남성 손님에게 위임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에서 남성이 여성의 몸을 임의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강간의 특성과 같은 것인데, 매춘여성에게 강간이나 폭력은 '화대 지불'의 유무에서 차이가 날 뿐 성매매 행위의 연속선상에 있다.

매춘여성들은 성폭력을 강제적인 성행위 후 '돈을 못 받는 경우'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7) Suzanne Kepes(1989), "The Repercussions of the Condition of Prostitutes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stitution, 61, Barry, 27쪽 재인용

이는 성매매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가지 예인데, 성매매와 강간은 '행동'이 아닌 화대 지불의 유무로 구별될 뿐, 남성이 사는 성은 비인간화된 육체인 여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강간의 성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⁸⁾

한편 성매매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용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이 '성기'라는 점에서 훨씬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만약 성매매가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매춘여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현재와 같은 무게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성기 접촉을 비롯한 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이 놓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필요로 하는 성행위는 생물학적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성기 접촉'에 있지 않고 여성의 '성적 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매춘여성의 연령과 수입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⁹⁾ 성매매가 단순히 성기 사용만이 요구되는 행위라면 매춘여성의 나이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성산업에서 업주나 남성 손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성의 '몸'이고 이를 사용하는 성적 서비스이다. 그렇다면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통해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가학적 심리를 포함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매춘여성의 몸은 성적 대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놀이의 대상이나 사물로 취급되고 있으며 여기서도 모든 가학적 행위는 '화대 지불'로 무마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술자리를 중시하는 직업 문화, 군대 문화가 일반화된 남성 문화로 자리잡혀 있는데 여기서 성매매는 남성이 남성성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단순히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성교'가 아니라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매춘여성은 남성의 유흥과 천목을 돋우기 위한 오락물로 전락하고 남성은 자신의 권력(위압, 돈 등)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지배를 즐긴다.

남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성이며 여성의 몸, 몸짓이다. 따라서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이 매춘여성에게 요구하는 비하적 행위들은 의도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매매는 이러한 남성의 가학적 심리가 내재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고 매춘여성은 화대 지불을 대가로 자아를 자신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의 몸에 대한 사용·통제권을 일정 시간 남성 손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8) '화대 지불'이 매매춘과 강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매춘여성의 구술사를 보면 이들은 강간을 단지 "손님이 성행위 뒤에 화대 지불을 거부하거나 돈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Barry, 1995, 36~38쪽)

9)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춘여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다른 직종과는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성매매 산업에 오래 있을수록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정은, 1994, 63쪽). 매춘여성의 수입은 성매매의 유형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매매춘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남성의 성적 서비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세가 넘으면 흔히 '퇴계'라고 불리면서 상품 가치가 극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성에 대한 지배와 여성 비하에 있는 한, 매춘여성에게 요구되거나 가해지는 남성 손님의 폭력은 소멸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화대를 지불하는 권력 관계에서 매춘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2) 익명적 성 :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남성들이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욕구에는 '비밀 보장'과 '새로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전제되어 있다. 익명적 성을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전제는 남성들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성매매의 성격과 매춘여성의 삶의 유형을 구성한다. 남성이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이유는 익명의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는 음성적 상태로 온존·유지된다. 따라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성의 새로운 여성에 대한 욕구는 구매력을 자극하는 원동력인데 이러한 현상은 매춘여성의 잦은 이동을 유발한다.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한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의 경우 업주는 남성의 익명성과 새로움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끊임없이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매춘여성은 현재 일차적으로 그들이 유지해 왔던 사회적 관계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주변화된다. 이러한 분리는 성매매의 익명성과 매춘여성의 잦은 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산업의 업주가 남성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춘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익명의 공간에서 남성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그 안에 있는 여성은 모든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또한 성매매의 경험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게 한다.

그들이 유지해 온 정체성에서의 분리는 성매매 세계의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하는데, 매춘여성 개인도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낙인을 의식하고 자신이 익명으로 성산업의 공간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매춘여성은 성매매를 하는 동안에는 거주지나 업소 등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흔히 의료 보험이나 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기피하고, 익명적 공간인 성매매의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한다.

그들은 업주나 알선자들이 만들어 주는 가짜 신분증이나 보건증을 사용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요구에 따라 유흥을 즐기는 존재로 가면을 쓰면서 자신을 성의 상품화와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으로 인해 성매매 공간에는 성적 대상물로서 가장된 여성의 정체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여성이 가족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조건은 익명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성산업의 착취자들에게 주요한 미끼가 된다. 매춘여성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억압이나 폭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울타리 없는 가족 출신이거나, 폭력적인 환경 속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¹⁰⁾ 아버지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

정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은 여성이 성매매 공간을 익명적 '도피처'로 이용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매춘여성들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가출과 순결 상실은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¹¹⁾

한편 유입 이전의 경험들은 알선자들과 쉽게 친밀감을 가지는 미끼가 되고 매춘여성에게 대한 통제, 착취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업주는 남성 손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매춘여성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들을 '고립화, 원자화'하는 전략을 꾀한다.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매춘여성은 쉽게 폭력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성매매의 '익명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존재하는'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 고립시켜 여성들에 대한 손님과 포주의 통제, 착취를 더욱 쉽게 하는 전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익명적 공간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는 매춘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과거와 정체성으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가 되어 남성과 업주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3) 성산업의 먹이 사슬 : 성매매와 성산업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유흥업소나 알선 업체 등의 성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매춘여성이 남성 손님과 일 대 일의 관계로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춘여성은 포주집부터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남성 손님과 각 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직업 소개소나 보도 사무소 등에 고용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매춘여성이 생활하는 형태는 나이와 경력, 미모, 강제성 등에 따라 감금 형식에서, 숙식하는 여성, 출퇴근하는 여성,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하다. 여성이 이들 업소에서 인신매매나 감금에 의해 강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통제와 착취는 극도로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매춘여성 개인에게 그 동기가 자발적이든, 강압에 의한 것이든, 성산업은 여성을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성산업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묶어매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선 공통적인 성격

10) 매춘여성 대부분이(91.6%)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박은정, 1994, 61쪽) 이러한 경험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현장 활동가 '가'의 조사에 따르면 성산업에 유입되기 전에 강간을 경험한 매춘여성 가운데 90% 이상이 근친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한국교회여성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매춘여성의 가출 동기 중 39%가 돈을 벌기 위해서였고, 남자 친구로부터 순결 상실이나 근친 강간 또는 강간이 24%에 이르렀으며, 가정 불화는 20%로 나타났다.(김기원, 1996, 10쪽) 이와 같이 가출한 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을 유혹하는 성산업의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인 '숙식 제공'은 여전히 중요한 미끼가 되고 있다.

을 갖는다.

형식적으로 볼 때 업주와 매춘여성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상징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고용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춘여성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거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매춘여성에게 대한 경제적 착취는 화대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나 업소에서 부과하는 벌금,¹²⁾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 등 비가시적인 착취 형식을 갖는다. 또한 업주와 알선 업자가 매춘여성에게 대한 통제와 착취를 훨씬 쉽게 하는 것은 빚과 그에 따르는 이자이다. 매춘여성들이 빚을 지는 첫 번째 이유는 가출 등으로 인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잦은 이동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포주나 업주 등이 이들에게 쉽게 빚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춘여성들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커다란 구속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미끼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탈매춘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을 빚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빚이란 매춘여성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업주가 매춘여성을 효율적으로 묶어 놓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¹³⁾

(그 동안 돈 좀 모았어요?)

돈을 모아? 몸통이 하나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행이겠어. 거긴 돈 못 모아. 모을 수가 없어.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빚을 지게 되거든. 집 나온 애들이 뭐가 있어. 빈 몸뿐이지. 방새 가구, 옷..... 다 빚이지. 매달 이자 물어야지. 빚에 묶여 있어. 완전히 매인 몸이니 주인이 매일 따라 다니는 거지. 그러니 누가 주인한테 따져 따지긴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¹⁴⁾

빚은 여성을 자발적으로 성산업 공간에 묶어 두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장치일 뿐 아니라, 감

12) 예를 들어 티켓 다방의 경우, 여성과 다방 업주는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이 하루 걸근할 경우 15-2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업주와 계약한 월급은 100만원에서 160만 원이지만, 성실한 사람이라도 15시간(오전 8시-오후 11시)의 노동을 30일 동안 하기는 힘들다. 몸이 아프거나 미용실, 목욕탕을 가야 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이 3-4일은 대가를 치르고 쉰다.(원미혜, 1997, 43쪽)

13) 한 현장 활동가(M 지역에서 3년 동안 매춘여성을 위해 일해 온 30대 중반의 여성) '다'에 따르면, 빚이 많은 여성은 다른 매춘여성들과 서로 '연대 보증'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한 여성이 일이 힘들어 도망을 치게 되면 연대 보증을 선 여성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잡히면 업주는 찾는 데 든 비용으로 보통 하루당 10만 원 이상의 빚을 부과한다고 한다.

14)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강간을 당한 뒤 가출하여 클럽의 댄서, 사창가, 유흥 업소를 거치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사례 재인용(원미혜, 1997, 44쪽)

금이나 업주간의 인신 매매 같은 폭력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 소개업자의 말을 들어보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 별명이 '짱가'라는 아가씨였는데 노름에 빠진 거야 노름에 빠지니깐 피곤해서 다방에도 잘 못 나가고 일을 못 나가니까 고스란히 빚이 되는 거지 노름 빚에 다방 주인에게 땀겨 쓴 돈 있지 일 안가서 소개소에도 빚이 있지..... 해서 700만원 정도 빚을 진 거야 그런데 도망을 간 거야 애들을 풀어서 찾게 했지 한 달만에 찾았어 찾아 놓고 보니 안됐더라 근데 어떻게 빚이 있으니..... 할 수 없이 강원도 00에 갔다 주었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의 경우는 거의 감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곳은 아가씨들이 많이 팔리거든..... 그렇게 도망친 아이를 잡아 온 경우에는 소개업자가 화가 나서 화풀이로 '너 한 번 고생 좀 해라고 비싸게 돈을 붙여 넘기지'15)

빚 때문에 산간 벽지나 섬으로 매매된 여성의 경우 탈매춘은 거의 불가능한데, 팔려 온 가격에 빚이 되어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곳의 경찰과 지방 유지들이 결탁해 있어 탈출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 매매나 빚에 의한 감금과 같은 생활은 매춘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구조들이며 이러한 폭력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성매매 시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매춘여성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16) 이는 성산업의 구조가 얼마나 착취적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빚과 그 이자는 그 자체로 착취적일 뿐 아니라 매춘여성을 강제하고 탈매춘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예화하는 가장 극악한 수단인 것이다.

매춘여성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착취하는 집단은 포주나 업주, 알선업자 등에 국한되지만 매춘여성의 존재와 수입에 기생하여 이를 착취하는 집단은 유흥업소의 마담이나 웨이터에서 주변의 시장, 목욕탕, 옷가게, 화장품 가게, 세탁소, 약국, 미용실, 음식점, 포장마차, 커피숍이나 카페, 호텔, 여관에서 점집, 여행사, 주택, 택시, 고리 대금 업자들까지 확장된다. 한편 매춘여성들의 수익에 공생하는 집단은 범죄 조직뿐 아니라 경찰, 구청 직원, 보건소 등으로 이들에게 포주 등이 상납하는 돈은 매춘여성의 부채로 돌아온다. 이들은 매춘여성이 성산업에 이용되는데 기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업을 유지, 보호하고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방해하는 데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매춘여성의 주변을 맴돌며 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부추기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쉽게 성산업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고리 대금 업자나 소비를 부추기는 이들 주변의 상권은 여성의 정체성을 더욱 소비

15)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가정 불화로 고등학교 때 가출하여 경기도 지역의 유흥 업소, 티켓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이들 업소에 여성을 알선해 주는 직업 소개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례 재인용(원미혜, 1997, 45쪽).

16) 매매춘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18.7%가 빚을 지고 있는 반면, 1년~3년인 집단은 27.1%, 5년 이상 된 집단에서는 27.5%가 빚을 지고 있었다. (박정은, 1994, 63쪽)

적인 성향으로 길들여 실제 다른 경제적 대안이 없는 그들을 묶어 놓는 역할을 한다. 매춘여성이 일단 성산업 시장에서 통용되는 씬 씬이에 길들여지면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매춘여성은 유흥업소, 사창가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산업의 특성상 마약이나 약물17) 뿐 아니라 노름이나 술을 쉽게 접하고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이나 약물은 주로 주변의 폭력 조직이나 업주로부터 얻기 때문에 약물, 마약 중독은 매춘여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매춘여성이 일단 습관성 약물이나 노름, 술, 마약 등에 빠지면 경제적 독립이나 미래에 대해 더욱 무력하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무절제한 낭비에 빠지는 것이다.

성산업의 비가시적인 착취 구조 때문에 매춘여성은 가시적으로 버는 돈에 비해 착취되는 돈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에 둔감해지면서 오히려 쉽게 탈매춘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특히 성산업 주변의 먹이사슬은 매춘여성을 '미모'에 대한 투자나 퇴폐 문화에 쉽게 젖어들게 하여 경제적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성산업에 길들여지게 함으로써 더욱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산업은 여성의 유입 동기(자발적/비자발적 선택)와는 별개로 매춘여성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많은 매춘여성들이 그 생활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빚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이므로 매춘여성은 포주에게 진 빚을 갚은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매춘여성들이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적 지식의 부재나 처벌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포주나 중간 매개자와 폭력 또는 의리나 정으로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적 관계는 매춘여성이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비가시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매춘여성에게 매춘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화대에 대한 분배와 벌칙, 빚과 이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매춘여성에게 지우는 빚과 이자는 경제적 착취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인신 구속과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한편 성산업 주변에 형성된 먹이사슬은 매춘여성이 성산업에 이용되는 것에 기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업을 유지, 보호하고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방해하는 데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착취 구조를 무마할 수 있는 것은 착취자들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매춘여성의 심리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 또는 애정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성매매 반대의 정치학

17) 매춘여성의 습관성 중독성 약물 사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진해 거담제,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본드, 가스 등에 의한 습관적 중독의 비율은 매매춘에 종사한 지 오래될수록 사용률과 남용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정은, 1994, 64쪽). 서구의 경우, 포주에 의한 통제나 착취가 없고 남성 손님의 통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거리의 매춘(street-prostitution)여성들의 경우, 화대는 그날의 코카인 값으로 결정되기도 하며 마약 거래상과 이를 연결하는 주변의 폭력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실이다.(Miller, 1995, 427~452쪽).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매춘여성은 돈을 주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춘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여성이 성적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여성인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다. 일단 남성은 성욕의 '대상'이나 성적 '존재'로 규정되지 않는다. 남성의 정체성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구성되지 신체적 기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대상화된 육체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력이나 성적 욕망은 오히려 당연시되거나 장려된다. 이와 더불어 남성은 지배적인 역할에 적합하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여성은 하고 있는 일이나 업적에 따라 평가되기에 앞서 신체적 기능에 따라 '여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여성'이란 남성에 의해 점유되고 취득, 소유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중 규범의 사회에서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성의 성교는 '따먹는다', '갖는다'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을 정취하고 소유하고 침범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남성에 의한 성교가 여성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남성과 성교는 여성 존재에 대한 침해로 읽힐 수 있다.

게리(Ann Garry)의 지적처럼 남성들은 성을 '여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적 역할은 해를 입는 대상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여성의 성은 남성과는 달리 '지배당함', '자기 파괴'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의 성적 욕구에 지배되는 대상이 됨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는 강간 신화의 논리이다. 그러한 신화 속에서 공식적으로 기꺼이 강간을 대신 당하는 존재가 '매춘여성'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춘여성의 존재는 아무런 인격적 의미를 갖지 않는, 그야말로 존재 그 자체가 남성을 위한 '성적 대상'인 셈이다. 안드레아 드워킨은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매춘여성의 존재를 '웃는 절구멍'에 비유하기도 했다. 남성들은 서로의 의사 소통과 단합을 위해 집단 강간과 성매매를 통해 여성의 육체를 사용한다. 여기서 여성들의 존재는 남성성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어느 곳에서도 매춘여성은 그렇게 취급되고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매춘여성은 무엇을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자체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우리 중 누가 또는 어떠한 집단이 우리를 아무 것도 아닌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이 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냥 스쳐간다고 생각해 보라. 매춘여성들에게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다.

성매매가 잘못된 것은 여성의 순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성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위배되

기 때문이 아니다. 성산업에서 매춘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착취되거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만도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여성이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의 신념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어 레스비언 관계는 매춘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지만 그 자체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재와 같이 열악한 매춘여성의 지위는 지켜야 할 순결을 상실한 집단에게 떨어지는 단순한 낙인이 아니다. 그녀의 지위는 화대 지불로 남성의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가부장제의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돈을 받기 위해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결국 남성에게 종속되며 성적 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매춘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매춘여성의 지위는 별개의 토대 위에 놓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남성의 권력 관계 속에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매춘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여성이 공공의 성적 대상이 될 때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며 매춘여성에게 대한 성희롱, 강간, 살인, 폭력, 인신 구속과 매매는 여성이 성적 대상화라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남성들은 생물학적 본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몸을 사 왔다. 남성들은 결코 매춘부처럼 자신의 몸을 파는 형식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몸을 파는 것 그 행위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로 해명될 수 없는 더욱 근본적인 '권력'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성매매가 남성 지배의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사회의 밑바닥을 확립한다는 것이다(안드레아 드워킨, 1992). 성매매를 통해 모든 여성들은 물건처럼 취급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은 그 위에 서 있다. 성매매는 남성이 지배적인 권력의 혈통을 이어 나가려는 수단이다. 이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은 그 남성이 실제로 매춘을 하든 안 하든 '여성들이 매춘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이익을 본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여성을 주변화하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실행하는, 잘 조직된 사회적 행위이다. 매춘여성은 성매매를 통해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 어떠한 개인적 이유와 의도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든 간에 성매매를 하는 것은 결국 지배적인 가부장적 논리에 편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으로 성매매를 옹호하려는 논리는 남성에 의해 강요되어 온 서비스를 끊으로써 여성이 다른 영역에서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불과하다.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매춘여성은 '여성'의 주변화된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전제이다. 여성의 정체성을 '성매매화된 육체'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시킨다. 이로써 여성을 사회적 권력과 역사로부터 내몰고 주변화함으로써 이를 모든 여성에게 보편화시킨다. 여성이 성적 존재로 규정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개별 존재가 아닌, 남성과는 구별된 단일한 열등자 집단으로서 '여성'이 된다. 여성이 남성

의 성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매매의 존재는 이러한 가부장적 신념을 확립하고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대안적 노동이 될 수 있거나 평등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5. 성매매에 대한 가치와 규범 만들기

법이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법이란 경찰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간의 관계와 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관이다(Wassila Tamzali, 1993).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도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의미하고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처벌주의(penalization),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규제주의(regulation), 인신 매매나 중간 착취 구조는 처벌하되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는 폐지주의(abolition)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 시대의 공창이 폐지되고 1961년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표면상 성매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1962년 4월에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에 따르는 해악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공동 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인신 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서명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90쪽)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1989년 4월이 되어서야 퇴폐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한 남자 손님 두 명이 입건되었을 뿐이다.('동아일보', 1989년 4월 26일자)

성매매를 범죄화한 후, 매춘여성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었고,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었다.¹⁸⁾ 특히 여성들은 선도 보호, 사회 복귀라는 명목아래 10개월 이상 열악한 보호소에 강제 입소되었다.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요보호자'라는 특수한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여 실제 취업의 가능성의 없는 기술 교육, 연장 가능한 수용 기간, 군\대식 훈련과 강요된 예배 등의 열악한 환경과 구타와 기합, 독방 감금 등의 인권 침해를 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5년 10월 원생들의 방화로 쇠창살에 감금되어 있던 원생 40여명이 사망, 12명이 부상을 당한 '경기도 여자 기술 학원 방화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1962년 내무부, 보사부, 법무부 등은 합동으로 전국 104개소에 특정 지역(기지촌, 사창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¹⁹⁾, 공중 보건이란 명목으로 강

18) 1996년 개정법은 성을 팔고 산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명시했고 남성 손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전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 1994년 국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기지촌 및 성매매 집결 지역의 수는 56지역, 여기에 있는 여성들의 수는 5022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특별위원회, 1994).

제 성병 검진을 시행했다. 지금도 매춘여성에게만 국한된 성병 검진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 검진에서 실격된 여성들은 무조건 감금되어 치료를 받지만 여성들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남성들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성(특히 미군의 경우)들에게는 매춘여성이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들 지역에서 여성의 존재는 남성에게 깨끗한 성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그야말로 '성적 대상'인 것이다.

많은 남성을 상대하는 매춘여성은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가는 성매매 행위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홍보하지 않으며, 에이즈 예방에 콘돔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매춘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매매를 그만두는 일이라고 교육하지 않는다. 남성 손님과 가족, 미군을 위해 감염된 매춘여성을 색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매춘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전제했듯이 성매매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내용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것은 '도대체 이러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가능한 것은 규제, 폐지, 금지라는 법 자체의 속성에 있기보다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일반인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되었던 정책들은 그 실행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구 소련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전쟁이 매춘여성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국이 성매매 현장을 덮칠 때 그 곳에 있는 남성의 신원을 기록하여 공공 빌딩의 외곽이나 공장의 게시판에 눈에 띄게 붙였다. 또한 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미국 당국은 유곽을 폐쇄하고 성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매춘부 검진에서 군인 검진으로 정책을 바꾸었는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보니 벌로, 1992, 427쪽) 이처럼 성매매를 단속하는 정책에서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매춘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규제, 처벌이 철폐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에 대한 규제 폐지를 통해 성산업에서 매춘여성이 주도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성매매는 이미 고도의 성산업화된 자본주의 체계에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과 매춘 여자의 대부분이 펌프 등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펌프가 없이 자신의 성을 거래하는 매춘여성들이(특히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폭력배나 마약상들에 의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J. Miller, 1995).

베리(K. Barry)는 성매매가 금지되는 영역뿐 아니라 비범죄화된 영역에서도 펌프의 교묘한 변화와 가부장적인 법률에 의해 매춘여성들이 착취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매매의 완전한 합법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은 매춘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K. Barry, 1995, 236쪽) 이들은 매춘여성에 대한 범죄화나 규제가 폐지되어야 하고, 남성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의 몸을 지배하려는 손님과 알선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차별적 범죄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매튜(R. Matthews)는 성매매를 탈범죄화하는 것은 대규모의 성산업을 창출하고 일약

한 여성을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 속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인 정책과는 다른 '급진적 규제주의(radical regulationism)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²⁰⁾

매춘에서 수익성과 성산업을 통제하는 이러한 대안적 규제 체계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강압과 착취를 감소시키고 매춘여성의 파트너뿐 아니라 법적 제도로부터 가해지는 추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L. Shrage, 1994, 82~87쪽).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매춘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성매매의 해악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매춘여성을 지원한 성공 사례로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매춘여성들은 성매매 일을 그만 둘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성산업을 종사하는 여성의 비용이 높은 말모(Malmö)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1977~1983년)는 매춘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에 대한 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상담과 의료 서비스, 캠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등을 매춘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대중 매체를 통해 성산업으로부터 빠져 나온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탈매춘을 지원하는 단체와 조직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는 대중적인 성매매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 행위를 그만 두었는데 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자였고, 1983년 최종적으로 남은 여성은 겨우 60명이었다.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해가 된다는 기본적 전제 아래 매춘여성을 갈보, 창녀로 전락시키는 성산업의 합리화를 근절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Barry, 1995, 248~249쪽).

물론 이러한 성공 사례는 사회 복지 정책이나 성문화가 우리 나라와는 다른 '스웨덴'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대안이 주어진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길 바라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벨기에 장관의 말대로, "문제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인권의 문제와 양립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지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양쪽 끝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 것도 없다. 당분간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극단의 논리 속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여성의 '인권'에 대

20) 그는 사회적 정책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원칙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여성의 성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만연된 남성의 전제에 대한 각성. 둘째, 공공적인 소란이나 추행, 소음, 셋째, 착취나 억압에 대한 처벌. 넷째, 성산업화의 감소.

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 자신일 뿐이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주의적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성매매가 왜 인간의 권리와 양립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6. 맺는 말

성매매는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성매매의 문제를 가시화하지 않는 한, 언제나 그랬듯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매매 공간에서 매춘여성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고 어딘가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빛과 폭력'이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빛과 폭력이다. 그러나 빛을 탐감할 대안이나 도움을 구할 곳도, 그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혜택과 대안의 가능성을 접할 기회를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일 수 있다.

한 현장 활동가는 매춘여성은 사회의 소외 계층이 아니라 단절 계층이라고 지적한다. 철저하게 봉쇄된 그들 내부에 폭력이 난무하고 성매매의 비가시성 자체가 행사하는 폭력은 매춘여성들과 여성들에게 그대로 행사되고 있다. 그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시대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동시대인으로서 갖는 의무적인 또는 호기심에 불과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매춘여성의 삶의 모습이 '나'를 '여성'으로 분류하는 인식에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대부분은 매춘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폭력 남편이 지배하는 가정의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듯이 성매매 공간 또한 그러하다. 폭력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한 폭력을 이유 없이 타인에게 행사하지 않듯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력을 자행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와 폭력이 사회화 격리된 '사적 관계'로 행사되는 것처럼 업소 여성들과 포주, 폭력배의 관계는 잘 짜여진 사적인 통제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창가의 입구에는 어김없이 저택의 수위실처럼 파출소가 세워져 있고 잘 구조화된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육체에 대한 학대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드레아 드워킨의 말은 우리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들의 몸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계속해서 반복, 반복될 때의 느낌을 느끼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성매매의 실재이다"(안드레아 드워킨, 1992).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서 간주하든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 것은 곧 힘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나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할 신중한 태도와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용기이다.

여성의 인권을 좀 먹는 성매매, 그 가부장제의 비겟덩이가 우리의 몸 속에 누적되어 숨통을 막게 될지, 우리 인식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매매 반대는 인권을 향한 첫걸음이며 그 자체가 힘이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각자 선 자리에서 풀어 가야 할 과제이다.

나는 여러분이 여성의 존재에 대한 문제담기의 첫걸음으로 주변의 사창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3~4명 정도가 한 조가 되면 좋다. 지나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오빠, 동생, 애인, 아버지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지를,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지를 느껴 보자. 성매매라는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 삼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성과 매춘여성의 성은 뭐가 다른지, 성매매가 더 이상 혐오와 공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슴에 안아 보자.

매매춘에 대한 다양한 관점

시루(여성학 자치도서관 'feminary')

매매춘에 대한 논쟁이 매우 오랜 시간동안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매매춘에 대한 관점 또한 다양하다. 매춘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또는 매매춘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엘리슨 재거의 '매매춘에 대한 서구 여성주의 시각들', 안드레아 드워킨의 '매매춘과 남성지배', 그리고 Laurie Shrage의 '페미니스트들은 매매춘에 반대해야 하는가'라는 글들을 중심으로 서구 여성주의에서 논의되었던 매매춘에 대한 관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성중립적인 직업으로써의 매매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관점

이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매춘을 탈범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매매춘에 관한 법적 금지가 개인의 자기 몸에 관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선 만약 매매춘이 법적으로 규제된다면 남성과 매춘 여성을 구별하지 않도록 성중립적인 언어로 쓰여져야 하며, 이성애적 성교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매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보고, 법적인 제재는 "공정한 가격에서의 깨끗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어디까지나 성중립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관점

매매춘이 '임금 노예'의 비열하고 강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임노동을 비정당화하는 하나의 예로서 매매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관점에서 매춘 여성은 노동자였고, 자본은 이 노동자들을 '취여搾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관점의 문제점

급진주의적 여성주의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 이 관점들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성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매매춘의 문제를 너무나 무성(無性)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매매춘부가 여성이라는 점과 매매춘 과정에서 이 여성들이 통제당하고 억압당하는 점을 간과했다.

2. 여성 억압의 기재로서의 매매춘

급진적 여성주의 관점

급진적 여성주의는 매매춘이 본질적으로 성별화된다고 주장했다. 매매춘은 성을 사고 파는 하나의 성중립적인 직업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성이 강제적으로 대상화되고 노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이 관점에서는 여성들이 비자발적으로 매매춘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매매춘은 물론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이 사회에서 받는 성차별로 인해서 다른 직업 기회를 얻지 못해서 매매춘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서구에서 매춘 여성들이 그들의 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어려서부터 사회화 과정 속에서 성애화된 남성의 지배와 여성 종속을 여성 스스로 체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급진적 여성주의는 매춘 여성들이 알선업자들이나 남성 포주들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심지어 성노예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매매춘 여성을 하나의 성적인 희생자로서 보고, 그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에 미치는 '사회적'인 또는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지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급진적 여성주의는 현재 매매춘 제도가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적 신념 체계를 계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매매춘은 다른 제도들처럼 여성을 억압하는 가치들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산업일 뿐이다. 즉 현재의 매매춘은 이미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 가정들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Gender와 Sexuality를 가치가 낮고 부정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먼저 성적 충동·특히 매매춘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성의 성충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성충동 또는 성적 접근이 제재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춘은 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이 '지배'의 역할을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성산업에서 통용되는 남성중심적인 성적 관행도 이런 '자연스러운 지배'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다. 세 번째로 '성적 접촉이 여성을 타락시킨다'는 전제는 매춘 여성을 '더럽거나 인간이하의' 존재로 취급하고, 성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해를 입는 대상의 역할로 규정짓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과 그의 성행위가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성적 관습이 그 사람들의 특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매춘 여성들은 단순히 '성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라는 표면적인 타이틀 이면에 있는 성적인 낙인 - 가령 '해로운 여자'와 같은 - 을 가지게 된다.

급진주의 여성주의의 또 한편에서는 매춘 여성들의 비참한 삶 자체를 직시해야 한다는 현장 중심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안드레아 드워킨이 '매매춘과 남성지배'에서 밝히듯이 매매춘은 엄연히 남성이 섹스를 위해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여러 남성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학대받는다. 매매춘은 페니스나 다른 물건에 의해 채워지는 입, 질을 뜻하는 것이며 자기 몸에 이런 반복적인 학대가 가해지는 것을 상상해보라는 식으로 역설한다. 또한 매춘 여성들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춘 여성이라는 존재자체에 의해서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로 간주된다. 가령 에이즈에 관한 토론 안에서 매춘하는 여성들은 감염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매춘하는 여성들은 섹스와 남성과 여성과 관련하여 불결한 존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존재 가치만큼이나 그들의 삶 또한 남성 지배의 사회에서 하나의 밑바닥으로써 규정지어진다.

급진적 여성주의 관점의 문제점

이 관점의 문제점은 강제적/자발적 매매춘의 구분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진적 여성주의가 매매춘을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매춘 여성의 옹호자들은 이렇게 매춘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의 여지를 완전 부정하는 태도가 매우 무례하며 온정주의적이며 심지어 생색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매춘 여성들을 무기력한 희생자로서만 그려내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일방적인 태도는 자칫 매춘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효화하고, 이들을 더욱 더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한다는 것이다.

3. 여성해방의 가능성으로서의 매매춘

포스트모던적인 여성주의 관점

일부 매춘 여성 권리 옹호자들과 꽤를 같이하는 이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자들은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옹호하고 매춘여성들의 행위 주체성을 주장한다. 즉 매매춘은 짧은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보수를 주며 매춘 여성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자신의 작업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매춘 여성들이 자신에게 일종의 성적 개척자로서, 또는 성전문가로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매춘 여성들의 직업 선택은 그들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일부 서구 매춘 여성들은 희생보다는 세력화, 그리고 착취보다는 기업이 정신의 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볼 때 매매춘은 성치료를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남성뿐 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런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이들은 매매춘을 특별히 성별화된 제도라고 보고 있지 않다.

이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매춘 여성에게 낙인처럼 따라다니면서 매춘 여성을 주변화시키고 역사적으로 배제시킨 부정적 이미지들에 저항하며, 매춘 여성의 권리를 '차이에 기초한 평등의 요구'를 통해서 되찾고자 한다. 매춘 여성의 권리 옹호자들이라 불리우는 이들은 매매춘을 적극적인 '프로-섹스(Pro-sex)'의 정치적 진술을 만드는 것으로 매매춘을 해석한다. 예컨대, 매매춘은 혼외 정사, 익명적 성, 여가적 성, 그리고 성적 새로운과 다양성으로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매춘을 성과 일의 가운데 있는 활동을 그려냄으로써 매매춘은 공식적으로 직업으로써 대우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권리들을 함께 주장한다. 매춘 여성의 행동을 성관매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주도할 수 있는 권리, 낙태를 포함한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레즈비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성과 계급을 초월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등과 연결된 행동이라고 규정짓는다. 따라서 이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매매춘 금지법이 지향하는 바를 '온정적 간섭주의의 옹호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춘 여성들이 현재 견뎌야 하는 폭력의 대부분이 직업의 낮은 지위와 불법성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포스트 모던 여성주의 관점의 문제점

매매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제3세계에서 만연되고 있는 섹스관광과 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과 소녀에 대해 전세계적인 거래를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닌다. 매매춘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거래자들, 포주 손님들, 강제된 매매춘으로부터 여성이나 소녀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정부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매춘 여성의 주체성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유색인종이 주를 이루는 이런 매매춘 시장의 부작용들을 직시하지 못한 서구 중심적인 관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관점은 '시장'을 매춘여성들이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경제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는 점에서도 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매매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 '여성의 몸을 성적인 거래를 위해 상품화하는 것이 인간적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을 지닌다는 점도 이 관점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기지촌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과 기지촌 활동의 의미

김주영 (새움터 사무국장)

1. 들어가며

- 미아리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을 통해 살펴본 한국사회 매매춘 담론

얼마 전, 중앙 경찰서에 김강자 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미성년자 매매춘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전 근무지였던 옥천에서 관내 티켓다방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김강자 서장은, 다음 근무지로 매매춘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미아리 지역을 택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은, 미아리 지역의 미성년자 매매춘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연일 김강자 서장의 활약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있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호소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를 '성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가정과 학교로 돌려보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며칠 전, 어떤 신문의 독자 칼럼에 쓰였던 문장을 인용해서 "그러면 19세 미성년자의 매춘은 문제제시되고, 20세 여성의 매춘은 자발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 바란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짓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매매춘을 성별화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9세'라는 선을 그어놓고 이중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매춘'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화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력을 가진 한 성(性)이 다른 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매매춘 담론을 살펴보면, 성인 여성의 매매춘은 자발적인 선택이며 성적으로 타락한 일부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매매춘이 존재함으로써 남성들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해소하고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근거없는 믿음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남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도 뿌리깊게 남아있다.

다시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의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매매춘에 대한 일반화된 사회적 편견과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맞물리면서,

성인 여성의 매춘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 지역에 한정된 단속은 오히려 미성년자 매매춘을 더욱 음성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의 가부장제가 아직도 위력을 떨치고 있는 21세기의 한국에서, 성(性)이나 매매춘에 대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가 뿐이다. 매매춘을 둘러싼 담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 성 담론의 주체가 여성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매매춘의 한 당사자이며 피해자인 매춘여성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피해자가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매매춘이 존재하고 있다. 미아리나 청량리와 같은 전통형 매매춘이 룬싸롱,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과 같은 산업형 매매춘과 함께 번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조교제나 전화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 확산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매매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에게 억압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형성된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매매춘 구조이다. 외화 획득의 필요성과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겹쳐지면서, 정책적으로는 양성되고 사회적으로는 더욱 소외되어온 기지촌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윤금이씨 살해 사건을 통해 기지촌을 둘러싸고 민족주의와 여성주의가 충돌하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기지촌 활동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현장에 발을 딛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사회 매매춘의 특수성 : 동두천의 기지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촌'의 사전적 의미는, '군부대 인근에 형성된 촌락'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기지촌을 바탕으로 다시 의미를 규정한다면, '경제·문화적으로 미군기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과 상업을 기반으로 발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기지촌 지역인 동두천을 살펴보면, 수 십개의 클럽과 수 백명의 매춘여성, 그리고 수 천명의 미군들이 뒤섞여 있으며, '기지촌'의 실제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곳에는 주한미군 중에서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미 제1여단 사령부인 캠프 케이시(Camp Casey)가 약 400만평의 땅을 차지하고 주둔해있다. 미군과 카투사를 합쳐, 약 1만 7천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 2사단은, 파주, 동두천, 의정부를 중심으로 20여 개의 캠프로 구성되어 있다.

미군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광범위하다. 기지촌이 형성된 지역은 1, 2차 산업은 거의 몰락하고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외화에 의존하

는 소비중심적 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며, 매춘을 기반으로 하는 퇴폐적인 서비스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또한, 이질적인 미국의 하위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지역 문화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인 충돌은 기지촌이 형성된 초기에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지촌의 경제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무시되어 버린다. 또한, 외화 획득이라는 경제적인 필요성과 정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한 한국 정부에서는, 기지촌을 관광특구라는 형태로 합법화시키고 외부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더욱 매매춘 구조를 강화시키게 된다.

어떠한 여과장치도 없이 유입되는 서구의 하위문화, 지역 아동들에게 미치는 비교육적 영향, 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많은 범죄, 합법화된 매매춘 구조 속에서 유린되는 여성들의 인권 등 기지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매춘산업에 의해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의 문제일 것이다. 기지촌 지역의 매춘여성들은, 매매춘 자체가 가지는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문제점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겹쳐짐으로써 더욱 심각한 착취와 고통을 겪게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지촌 지역의 매춘여성이 겪게 되는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즉,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탈인격화시키고 성적 대상으로 폄하시키는 '매매춘'의 문제점이, 종속적인 한미관계와 봉건적인 가부장제를 만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수의 기지촌 매춘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강간 등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강요되어온 순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스스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피해여성 개인의 잘못으로 치환된다. 죄책감과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순결 이데올로기,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 학교,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박탈당한 상황이 겹치면서, 이 여성들은 가솔과 매춘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일단 이렇게 매춘을 시작한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안도 제공되지 않는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매춘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상처와 내재화된 죄의식,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매춘을 계속함에 따라, 이 여성들의 사회 재적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온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기지촌이다. 봉건적인 잔재가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매춘여성은 다른 직장을 선택할 수도, 가정을 이룰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매춘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미군과 결혼해서 이민을 가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기지촌에서 미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꿈을 이루는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인 중에서도 가장 하위계급에 속하는 대다수의 주한미군들에게 기지촌의 여성들이란 한국에서 주둔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3. 기지촌의 변화 : 외국인 여성의 유입

최근 몇 년 사이 기지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의 문제이다. 한국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미군과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여성들은, 자국내의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최근 들어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국내의 매매춘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여성들은 '프로모션'이라고 불리는 인신매매 업체와 필리핀 내의 브로커를 통해서, 연예계통에 취업이 가능한 E-6 비자 (Entertainer Visa)를 가지고 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대부분은 기지촌의 미군전용클럽에서 스트립 댄서로 일을 하거나 매춘을 강요당하게 된다. 한국에 오기 전에 맺는 계약에서 이 여성들이 받는 월급은 600달러(약65만원)로 되어있지만, 프로모션과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돈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한달에 250~300불(약30만원) 가량을 받는다. 또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계약조건과 업주에 의한 여권 압수,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되는 2000달러의 벌금 등을 통해 스트립쇼와 매춘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쥬스 할당제'가 있어서 매일 약 20~30잔 가량의 쥬스(색소를 섞은 혼합주)를 팔아야 한다.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날 벌어들인 그 여성의 몫(쥬스값의 약 20~30%) 전체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할당제를 통해서 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스트립쇼를 하거나 미군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게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자국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월 100달러 가량의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국가간 노동력 이동이 점차 여성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성산업과 맞물려서 이러한 현상이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필리핀 여성이든 한국 여성이든 기지촌으로 유입되어 매춘을 하게되는 것을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치환시킬 수는 없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고도로 산업화된 매매춘, 불평등한 한미관계, 미국에 대한 그릇된 환상, 국가간의 빈부격차, 저학력 여성들이 겪는 취업기회의 절대적 부족,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편견, 초국적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국가간 여성 노동력 이동 등이 이러한 기지촌 문제의 바탕이 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기지촌 유입을 통해, 미군전용클럽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들이 더 열악한 매춘지역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외국인 여성의 유입을 반대하는 논리로 악용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중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어느 곳에서도 채워질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지촌을 찾아오는 많은 여성들이 결국 여기서도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지촌에서 더 심한 착취와 소외, 그리고 절망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4. 윤금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기지촌 담론

사회적으로 철저히 무시되었던 기지촌 매춘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는, 1992년 동두천에서 미군 이등병 케네스 마를에 저질러진 윤금이씨 살해 사건이다. 처참하게 살해된 윤금이씨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미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미군'에 의해 '한국여성'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매매춘 산업의 희생자인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의미는 휘발시켜 버리고, '순결한 민족의 딸'로서 규정지음으로써,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시키고 매춘여성으로서 겪었던 억압과 피해를 희석시켜 버렸다. 이러한 의도적인 재해석이 미군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선연적인 민족해방 투쟁을 현장으로 끌어내리고 기지촌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를 단순히 '한국인'이라는 틀로 획일화시킴으로써,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 구조를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즉, 한국사회에는 기지촌과 매춘을 존재하게 하는 가부장적 편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 억압을 무시하고 민족 모순만을 드러냄으로써 매매춘을 유지하는 사회적 기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금이씨 살해 사건 이후, 미군범죄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지촌 매춘여성의 인권 문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지촌'이 민족 주권의 문제로, 거대 담론의 수준에서만 읽혀지는 상황이라면, 기지촌 매춘여성 개인의 인권은 묻혀질 수밖에 없다. 물론 민족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한국사회를 해석하는데 민족주의가 상당히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족주의 담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한, 기지촌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억압의 고리를 모두 풀어낼 수 없으며 오히려 은폐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여성주의를 포함한 다른 언설이 권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기지촌 문제의 미시적이고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바라보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5. 기지촌 여성운동 :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대안

'매매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갖춰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처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을 오히려 어정쩡한 규제주의에 가깝다. 여성을 통제하는 기제로만 이용되는 형식적인 성병검진, 매춘 지역을 찾는 남성들을 위해 매매춘 지역 입구에서 교통정리나 하는 경찰, 업주와 결탁한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단속 등은 오히려 매춘 구조만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춘여성의 인권은 더욱 소외되고 무시될 수밖에 없다. 매매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탈범죄화와 '피해자'로서 규정짓기, 매춘을 강요하는 포주와 클럽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매춘업소를 찾는 남성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교육 프로그램, 이중적인 가부장제와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확대된 형태로서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1996년 11월 동두천의 기지촌 지역에 설립된 새움터는, 1990년대 초반부터 기지촌 여성운동을 해오던 현장 활동가들과 기지촌 활동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 동두천에서 문을 열었다. 현재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탈매춘 상담과 공동식사 제공, 의료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란, 지속적인 상담과 기술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상처와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건강한 노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힘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새움터 활동의 대부분이 탈매춘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작업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물론, 현장 단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역량의 한계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미시적인 차원에 집중하는 새움터의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부분을 짚어나가는 작업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10여 년의 기지촌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기지촌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각 학교와 단위를 중심으로 기지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올바른 담론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또한, 기지촌 활동을 통해 매춘여성들과 맺게된 애정어린 인간 관계를 통해서,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6. 마치며 - 지금, 현장에 발을 딛고 다시 시작하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기지촌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인 매춘여성들 스스로의 목소리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너무나도 높은 사회적 편견 앞에서 여성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라고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목소리로 대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구조적인 억압 체계는 개인의 신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간접적이고 미시적으로 작용하는 권력은 우리의 몸과 정신에 더욱 강력하고 은밀하게 영향을 미친다. 성폭행의 경험과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성을 상품화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둔 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짐작할 수 없다.

담론의 당사자와 해결의 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끊임없는 '말걸기'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매춘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 치유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걸어야 하며, 이 여성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외치고 시비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서 우리의 두 발이 현장을 딛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말은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다.

기지촌 활동의 의미는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수준에서 함께 생활하고 나눔으로써, 매춘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충격적이고 감각적으로 와닿는 모습만을 기대한다면 기지촌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상을 통해서 쌓아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지촌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 그 것이 기지촌 활동의 참된 의미인 것이다.